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해양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

● Contents



□ CMA CGM, 아비장(Abidjan)항, 두 번째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입찰	2
□ 러시아, 소치항 화물터미널 공사 완료	3
□ 캐나다 시드항,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4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Maasvlakte II 터미널 진행 중	5

## □ CMA CGM, 아비장(Abidjan)항, 두 번째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입찰

- CMA CGM은 아이보리코스트(Ivory Coast)<sup>1)</sup>의 아비장항의 두 번째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운영하는데 2억~2억 5천만파운드(250.1백만~312.6백만달러)를 투자하는 컨소시엄의 일부로 참여 결정
  - CMA CGM 이사인 로돌프 사드(Rodolphe Saadé)는 아이보리코스트 알라산 와타라(Alassane Ouattara) 대통령과의 회의가 끝난 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지역 기자들에게 말함
- 나중에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CMA CGM이 컨소시엄 일부로 참여한다면 지금부터 4년 안에 이 프로젝트는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
  - 성명서에 따르면 CMA CGM은 프로젝트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의도는 없으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컨소시엄의 일부로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위에서 언급한 금액은 CMA CGM의 투자금액이 아닌 전체 프로젝트의 금액이라고 말함
- 아이보리코스트는 세계 최대의 코코아 생산지이며, 아비장항은 바다에 면하지 않은 서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가장 인접한 항만
  - 아이보리코스트는 아비장항의 처리능력을 현재 80만 TEU에서 2016년까지 매년 230만 TEU씩 증가시킬 계획임
  - 현재 아비장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은 프랑스회사인 볼로레그룹(Bolloré Group)이 관리운영하고 있음
- 7월 4일 아비장항의 대표이사인 씨 이엔(Sie Hien)은 AP Moller와 MSC(Mediterranean Shipping Co.) 선사 등을 포함해서 약 20개의 선사들이 입찰을 했고 최종 선정된 회사는 7월 18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언급
- CMA CGM의 사드(Saadé)이사는 서아프리카 지역은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선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서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투자처들도 찾고 있다고 언급
  - 사드 이사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해상 운송은 매년 8~10%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말함

< 아비장항 전경 >



< 아비장항 컨터미널(볼로레그룹 운영) >



자료 : www.lloydslist.com, 2012.7.5

이언경 전문연구원 (☎ 02-2105-2919, eklec@kmi.re.kr)

1) Ivory Coast는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의 구칭으로 서아프리카의 공화국

## □ 러시아, 소치항 화물터미널 공사 완료

- 러시아의 베이직 엘리먼트 그룹(Basic Element Group)<sup>1)</sup>은 소치(Sochi)의 이머레팅스키항(Imeretinskiy) 화물터미널의 완공을 발표
  - 이머레팅스키항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Sochi Winter Olympic Games)을 대비하여 건설되었으며, 총 건설비용은 약 200백만 달러가 투입되었음
  - 항만의 총 물동량은 연간 약 5백만 톤, 부두의 깊이는 약 9.2 미터이며, 베이직 엘리먼트 그룹의 자회사인 트란스트로이(Transtroy)사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 이머레팅스키항은 이동식 립헬 크레인(Liebherr, LHM-280과 LHM-180형)과 크레인 조작기, 프론트-엔드 로더, 화물 지게차 등의 장비를 갖춘 다목적항으로 건설
  - 러시아에서 공공-민간 합작으로 지어진 유일한 항구이며, 구소련 체제 이후 흑해와 아조브해(Sea of Azov)에 건설된 유일한 다목적 화물 터미널임
  - 공학적으로 독창적인 양식을 사용하여 조수와 지진 문제와 같은 지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흑해 연안의 수중 해협 위에 건설되었음
  - 각종 벌크 화물(쇄석, 모래)과 일반 컨테이너 등 다양한 화물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항만은 베이직 엘리먼트의 자회사인 이머레팅스카야 항만운영사(Imeretinskaya Stevedore Company)에서 운영 중
  - 2014년 소치 올림픽 폐막후 600-700척의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대규모 요트 마리나로 재개발될 예정임
  - 베이직 엘리먼트사는 재개발 비용을 50~100 백만 유로로 책정하고 있으며, 재개발 후 소치 올림픽 경기장 시설과 함께 리조트 시설로서 소치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화물터미널 공사 현장 >



< 소치 이머레팅스키항 위치 >



자료 : www.dredgingtoday.com, 2012.7.5

김일현 연구원 (☎ 02-2105-2914, blaze28@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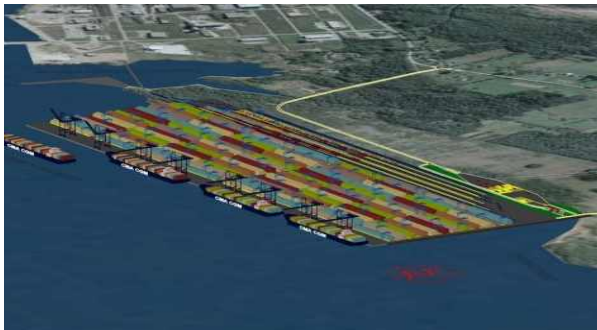
1) 에너지, 건설, 항공, 제조업(자동차, 철도, 군수업), 금융업 등의 5개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러시아 대기업 중 하나



## □ 캐나다 시드항,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 캐나다 케이프 브르통 자치단체(Canada's Cape Breton Regional Municipality, CBRM)<sup>1)</sup>는노바스코샤(Nova Scotia)지역에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을 위해 시드항 게이트웨이(Sydney Gateway)입찰을 발표
  - 시드항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대변인에 따르면, 세계 무역관점에서 시드항 개발의 전략적인 이유는 수에즈운하에서 캐나다 항만 중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터미널이며,
  - 세계의 무역 루트는 현재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리적으로 북동 미국의 거점이 점차 중요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함
  - 시드항의 신규 터미널은 이러한 점에서 시드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함
-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 3.5~4억 달러를 투자하여 컨테이너 100만 TEU 처리능력을 확보할 예정
  - 또한 최근 시드항의 500Acre 규모에 신규로 준설된 수심 12.1m 심수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박을 수용 할 수 있으며, 배후에 시드항산업단지(Sydney Industrial Park)및 시드니 공항과 인접하고 있어 물류여건이 좋음
  - 이에 현재 터미널 및 철도 운영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물류관련 사업자들이 시드항을 주목하고 있으며, 관심을 표명함
- 아울러 신규 터미널은 미국 동부 해안의 피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및 미국 중서부 지역의 주요 내륙화물 클러스터에 철도로 연계가 가능
  - 신규 터미널을 통해 현재 철강 산업에 의존적인 지역 경제적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 시드항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조감도 >



< 시드항산업단지 및 시드공항 위치 >



자료 : www.portstrategy.com, 2012.7.5

황현주 연구원 (☎ 02-2105-2897, julya7@kmi.re.kr)

1) 캐나다 노바(Nova)지역에 위치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지방자치단체

##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Maasvlakte II 터미널 진행 중

- 2011년 1,190만 TEU를 처리한 세계 11위의 로테르담(Rotterdam)항은 Maasvlakte II 개발 중
  - 로테르담(Rotterdam)항의 Maasvlakte II 터미널은 2011년 270만 TEU를 처리하였으며, 현재 운송수단 분담률은 바지선 40%, 트럭 40%, 철도 20%로 구성됨
- Maasvlakte II 터미널 프로젝트의 장비 주문, 소프트웨어 개발, 터미널 공사 등이 빠른 진전
  - 본 프로젝트는 2014년 완공 예정이며, 2014년 11월 운영을 시작하도록 계획됨
- Maasvlakte II 터미널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고, 연간 340만 TEU 처리능력의 글로벌 운영사인 APM-T가 운영할 계획
  - Maasvlakte II 터미널은 2014년 운영 시 4개(최대 8개 가능)의 철도 인입선이 터미널까지 연결됨
  - 또한 유럽 바지선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이용으로 내륙 진입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한편 Maasvlakte II 터미널은 지속 가능한 환경실현을 위해 육상으로 대신 해운, 철송 복합 컨테이너 운송 기반을 마련함
- Maasvlakte II 터미널 계획은 2014년 11월 A단계 운영 시 가용면적이 총 면적 86ha중 60ha이며, 수심 20m의 전용부두(안벽길이 1km), 수심 9m의 피더 부두(안벽길이 500m)가 포함
  - 추후 확장 계획인 B단계는 500m 전용 부두와 부지 추가, C+D단계는 1,300m 전용부두와 부지 추가 등, A-D단계의 총 항만 면적은 167ha임

< 로테르담항 위치 >



< Maasvlakte II 터미널 개발 위치 >



자료 : www.dredgingtoday.com, 2012.6.25

최은혜 연구원 (☎ 02-2105-2838, choeeunhye@kmi.re.kr)

## [공지] 한·중·일 국제물류 컨퍼런스 개최

- 일시 / 장소 : 2012년 7월 16일(월) 13:00 ~ 17:40 / 부산 Bexco
- 주제 : 미래 지향적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구축방안
- 주최 : 국토해양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참가신청 : [www.2012mctl.org](http://www.2012mctl.org) 에서 등록
-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13:00~14:00	등록 및 자료배포	
14:00~14:05	개회	
14:05~14:20	축사 (국토해양부 / 중국 교통운수부 /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	
14:20~15:05	제1세션: 막힘없는 동북아 통합물류체계 구축	
	한중일 재활용 팔레트 사용증진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국제물류연구실장
	막힘없는 육상해상 복합운송 물류시스템 구축방안	위동페리 Shan, Guo Fang 부사장
	국제복합물류 촉진 방안	일본통운 Nakamura, Jiro 부사장
15:05~15:50	제2세션: 동북아 물류정보 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물류정보 네트워크 구축 방안	중국 저장성 도로운수관리국 Wei, Feng 국장
	화물운송 가시성 확보 시스템 구축 방안	유센로지스틱스 Yano, Shunichi 이사장
	정보화와 표준화를 통한 물류 보안 추진 방안	케이엘넷 서정호 대표이사
15:50~16:05	Coffee Break	
16:05~16:50	제3세션: 녹색물류 실현 및 선진물류기술 교류 촉진	
	친환경 물류시스템 구축 방안	일본 국가해양연구소 Someya, Takaichi 전무이사
	선진물류기술 교류 촉진	(주)한진 최정석 전무
	녹색공급사슬 구축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COSCO Group Ye, Wei Long 부사장
16:50~17:25	종합토론	
	좌 장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학소 원장 토론자 - 발표자 전원	
17:25~17:35	질의응답	
17:35~17:40	종 합	